

주일에배
오전 (1부) 8시 7시
오전 (2부) 7시 30분
오전 (3부) 7시 30분
오전 (4부) 12시
금요일 (1부) 18시 30분

서울 교회 1600-0688
장소: 강서구 화곡동 KBS 88체육관

Jesus Centered News

주일에배
오전 (1부) 7시 30분
오전 (2부) 10시
오전 (3부) 2시
저녁예배 7시 30분
수요일예배 (4부) 8시

인천 교회 032) 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가좌동 472번지

예수중심교회

2013년 7월 21일 (제699호)

(서울) 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1600-0688, 02)533-9191 Fax. 02)592-9191 (인천) 인천시 서구 가좌동 47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575-5730 http://www.jcc.tv (철아 주일 예배 위치 및 인터넷 생방송)



봉우 칼럼

내가 먼저 불이 붙어야지!

휘발유와 경유, 그리고 연탄, 마른 풀 중에 불을 붙인다면 어디에 가장 빨리 붙을까? 인화성이 높은 휘발유일까? 아니면 바삭 마른 풀일까? 그 어느 것도 옳은 답은 아니다.

가장 먼저 불이 붙는 것은 성령이다. 성령에 먼저 불이 붙어야 휘발유에든 경유에든 불을 붙일 수 있다. 그 말인즉 내가 먼저 실력이 있어야 남을 가르칠 수 있고, 내가 기뻐야 남에게 기쁨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더 나열하자면 내게 열정이 있을 때 남에게 열정을 전할 수 있고, 내가 믿음이 있어야 남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말은 예수님의 말씀에서도 확인된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행16:31). 즉 너와 네 집부터 구원을 얻어야 남을 구원할 수 있다는 말씀이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마22:39)는 말씀과도 상통하는 것으로, 내 몸을 먼저 사랑해야 남도 사랑할 수 있다는 말씀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빛이었기에 세상을 밝힐 수 있었고, 당신이 사랑이었기 때문에 인류를 사랑하실 수 있었다.

내가 세계를 다지며 성령 세례를 줄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이 뜨겁게 내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미지근하면 어떻게 남에게 불을 붙이겠는가? 성도들에게 기도하라고 할 것이 없다. 주의 종이 기도하면 성도들은 자동으로 기도한다. 불이 옮겨 붙으니까. 내가 먼저 정직하면 내 주위가 다 정직하게 되고, 국가 통치권자의 마음에 선진의 불이 뜨거우면 국민들의 의식이 바뀌고, 사주의 마음에 열망이 있으면 종사자들도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득하게 된다. 그러므로 나부터 먼저 복 받고, 나부터 건강하고, 나부터 행복하고, 나부터 지식과 믿음이 있어야 한다. 모든 것의 출발점은 나다.

썩은 뿌리는 과감히 잘라내시오!

멕시코(Mexico) 타바스코(Tabasco)주의 히메네스(Arturo Nunez Gimenez) 주지사에게는 큰 고민거리가 있었다. 취임 6개월이 지난 그로서는 도정(道政)을 이끌어갈 데 있어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이 가장 큰 적이었다. 출입가자들도 신임 주지사에게 부패관리들의 정리를 거듭 촉구하곤 하였다. 그러나 그에게는 아직 그런 결단을 실행할 만한 마음의 준비가 부족했다. 비록 42년의 정치역정에 노련한 정치가로 평가 받고 있던 하나, 65세의 히메네스 주지사는 새로운 도전보

라도 잘라내고 다른 사람을 세울 겁이 없다. 왜냐하면 나의 남미 선교사역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다. 주지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눈치껏 쓰면 참모라도 그 눈이 썩었으면 빼내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주지사님은 곧은 뿌리로 이 주의 중심을 잡는다면, 주위의 참모들은 잔뿌리로 그 곧은 뿌리에 영향을 공급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잔뿌리가 썩어버리면 나무 자체가 다 썩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썩은 뿌리에 물을 줘봐도 더 썩을 뿐

가 매우 기뻐하고 있다고 전했다. 십년 체증이 내려간 것처럼 즐거운 표정이란다. 주지사의 반응은 즉시 나타났다. 집회기간 동안 목사님의 경호를 위해 차량과 사복경찰 및 무장경찰병력을 지원하는가 하면, 경제담당특보 및 경제인연합회 장단을 보내 호텔 조찬을 대접하기도 하였다. 목사님은 조찬 모임에서 언론을 두려워하는 주지사 및 주정부관리들에게 언론을 두려워 말고 원군을 삼아야한다고 강

RUMBO NUEVO
EL DIARIO DE LA VIDA TABASQUEÑA Villahermosa, Tabasco, Mexico. Viernes 12 julio, 2013
Publicado el: Miércoles, 3 de julio del 2013 0:33 Política | Por Rumbo Nuevo

Recibe Núñez a pastor surcoreano
Durante su reunión con uno de los líderes de la segunda iglesia más grande del mundo, el jefe del Ejecutivo aseveró que en la entidad se requiere reforzar los valores ético-morales entre la población, principalmente los niños, pues hay un fuerte rezago en el cultivo espiritual

ANEXO POLÍTICO
Vamos enderezar el rumbo
Presenta: Plan Estatal de Desarrollo 2013-2018

Redacción Rumbo Nuevo
El gobernador Arturo Núñez Jiménez sostuvo un cordial encuentro con el apóstol Lee ChoSuck, pastor de la segunda iglesia más grande del mundo, que cuenta con más de 700 mil seguidores en Corea del Sur. V

멕시코 타바스코 주 유력 일간지 일 인터넷 신문들이 1면 헤드라인에 목사님과 히메네스 주지사의 만남을 기사화하며 깊은 관심을 표명했다.
En el Salón de Recepciones de Palacio de Gobierno, el mandatario tabasqueño intercambió comentarios

다는 조용한 마무리를 더 선호하고 있었는지 모른다. 바로 그런 그의 미지근한 마음에 휘발유를 끼얹은 인물이 있으니, 그는 바로 저 멀리 대평양 건너 대한민국이라는 동양의 작은 나라에서 찾아온 이 초석 목사였다. 교육에 관한 의견을 나눌 때만 해도 서로 이견도 없었고, 각자의 사상이나 철학에도 서로 깊은 공감대를 표할 만큼 자리는 부드러웠다. 그러나 목사님은 마치 작심하신 듯 ‘잔뿌리론’을 설명하시며 주지사의 과감한 결단을 촉구하였다. “나는 내 옆에 있는 통역관이 연구노력하지 않고 나태하다고 느껴지면 오늘이

입니다. 과감히 잘라내야 합니다. 이는 피도 눈물도 없이, 인정사정 볼 것 없이 결행해야 합니다. 이것이 당신을 뽑아준 주민들에게 신의를 지키는 길이고, 이주가 사는 길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주지사 뒤에 도열해있던 참모들의 낯빛이 어두워졌지만 목사님은 거침없이 할 말을 다하였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지사의 얼굴은 해맑게 빛나고 있었다. 이튿날 타바스코 주의 유력 일간지들이 이 만남에 대한 기사를 1면에 실고 큰 관심을 표명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호르헤 라네소사(Jorge Lanestosa) 종교당비서는 목사님과의 만남 이후 주지사

조하였다. “언론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깨끗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깨끗하다면 언론을 피하지 말고 오히려 그들을 친구 삼아서 자주 만나고 협조를 구할 것은 적극적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목사님의 사역을 적극 돕겠다는 히메네스 주지사는 다음 집회에는 2만 명을 수용하는 대 운동장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적극적인 열의를 나타냈다. 이 모든 것이 기도의 응답이다. 기도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린다.

한은택 전도사
henry8829@naver.com

17회 전국 청소년 연합 수련회
후회없는 삶을 사는 젊은이가 되자!

일시 | 중·고등부 2013년 7월 29일 ~ 7월 31일(2박3일)
대학·청년 2013년 7월 31일 ~ 8월 2일(2박3일)
장소 | 장성 예루살렘 기도원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막16:15~20)



레일을 잘 깔아야 기차가 달린다

“레일을 잘 깔아야 기차가 달린다.” 이것이 오늘의 설교제목입니다. 여러분은 이 제목을 듣고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설교제목만 들어도 깨닫는 바가 크다고 하던데, 여러분은 오늘 설교제목을 듣고 무엇을 깨닫습니까? 오늘 제가 드리고픈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광고를 해야, 소문이 나야 물건이 팔리고, 그 물건의 진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물건이 있다고 하더라도 광고하지 않으면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이번 멕시코 두 도시 집회를 다녀왔습니까? 그런데 첫 번째 도시인 알바라도에서는 주회측 목사가 열정적으로 광고하지 않아 정말 집회가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도시인 마쿠스파나에서는 베네리세 목사가 적극적으로 광고해서 성공적인 집회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똑같은 이초석 목사의 집회지만, 광고를 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가 그렇게 달랐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소문내지 않으면 아무도 그 물건의 그 진가를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업이 무차별적인 광고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업의 생존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기업도 그러할진대, 가장 귀한 기업을 소유한 우리도 광고해야 함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광고하지 않으면 누구도 우리의 기업에 대해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기업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광고는 지금까지 계속 되어 왔습니다. 이사가 선지자는

현대는 광고전쟁시대 무차별 광고로 승부하라

이사야서 9장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다윗의 혈통을 통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다는 것을 알렸습니다(사 9:6-7). 또한 이사야서 7장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의 몸에서 나신다는 것을 알렸고, 그 분이 우리를 위해 대속제물이 되신다는 것도 이사야서 53장을 통해 알렸습니다. 그리고 세례요한이 광야에서 자기 뒤에 오실 분,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외쳐 알렸습니다(막1:8).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에 말씀한 바대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광고하셨습니다. 당신이 그 나라의 주인이시며, 자신을 통해야만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알리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명을 완수하신 후 승천하시면서 그의 제자들에게 지속적으로, 더욱 적극적인, 더욱 포괄적인 광고를 당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마28:19-20),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막16:15),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행 1:8).

그래서 예수의 제자들이 그의 말씀에 따라 다시 오실 예수를 광고했습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으면서도, 사도바울은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비참지경에 이르러서도 오직 예수를 광고했습니다. 그



리고 많은 믿음의 선전들, 순교자들을 통하여 예수는 쉽게 이 광고되어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해야 합니다. 세상에는 아직 레일이 깔리지 않아 기차가 들어가지 못한 곳이 많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파해야 할 곳이 너무도 많다는 것입니다. 제가 70을 바라보는 나이에 장장 사흘 동안 비행기를 타고 지구 반대편에 가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40도가 넘는 더위와 싸우고, 벼룩에 뜯기고, 고산지대라 어지럼증에 시달리면서도 이 일을 하는 것은 바로 레일을 깔지 않으면 기차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기차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 기차 안에는 가난한 자들을 위한 부유와 아픈 자들을 위한 치료와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한 위로와 외로운 자들을 위한 사랑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죽을 수 밖에 없는 자들을 위한 구원이 있습니다. 이처럼 가장 귀하고, 가장 좋은

것이 실려 있어도 레일이 깔려 있지 않아서 기차가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전파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광고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소문내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예수님이라도 모른다니까요.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롬 10:14).

지금 모슬렘들도 전도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손 놓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일전에는

북미나 남미나 동유럽에 가보면 거리 곳곳마다 일본의 소니(SONY)와 파나소닉(Pana-

sonic)이 광고판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삼성과 LG의 광고판이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들 기업들이 방심하고 나태한 사이에 한국의 기업들이 광고에 열을 올리며 시장에 뛰어들어 그 시장을 잠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전도에 나태하면 다른 잡신들에게 시장을 먹힐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물건이 좋으면 당당하게 광고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 귀국길에 미국 애틀랜타의 유명순 권사가 운영하는 ‘조선옥’이라는 음식점에서 대접을 받았는데, 음식이 아주 맛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 중에 애틀랜타에 들리면 꼭 이 음식점에 들리라고 자신 있게 철야예배 시간에 광고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천지만물을 지으시고,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어 우리를 구원하신 분입니다. 그 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권세를 누릴 수 있고, 그 분으로 인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천상

천하에 가장 좋은 이름이 예수 아닙니까? 그런데 왜 광고하지 못합니까? 또 라디오 광고보다 텔레비전 광고가 더욱 효과적인 것처럼, 청각적인 것보다 시각적인 것이 더욱 효과적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으신 이유

광고는 생존 전략이요 성공에 이르는 첩경이다

가 바로 그것입니다(요4:48). 저도 세계를 다니며 귀신을 쫓고, 앉은뱅이를 일으키며,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귀머거리가 듣게 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 합니다. 광고의 효과를 배가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이 세상에 광고하러 나갈 때 능력을 임해서 내어보내신 것입니다. 마가 다락방의 120문도에게도 그랬고, 지금 우리에게도 성령으로 능력을 임해주시는 것입니다. 나가서 전파하라고요.

레일을 까는 일은 힘듭니다.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돈도 듭니다. 당연히 시간도 들어가겠지요. 그러나 이걸 아십니까? 기업의 광고를 하러 갈 때 기업에서 모든 비용과 편의를 제공해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광고하러 나가는 자의 뒤를 다 봐주신다는 것을요. 그래서 광고하러 가는 자의 발걸음이 복되다는 것ですよ.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사52:7)

그리고 또 하나, 꿈이 있는 자는 기다림이란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서 꿈이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 주님을 뵈는 날, 의의 면류관과 열 고을의 왕권과 하늘의 상을 받게 된다는 꿈이 있기에 인내하고, 어려움을 꿋꿋이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후회 없는 삶을 살고 싶습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는 구원자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십시오. 할렐루야!

153 선교 및 구제 후원금 안내

ARS (5,000원)

(060)700-0688
(060)700-0633
(060)700-0288

은행 계좌 안내

농협 1379-01-001903
국민은행
695001-01-122494

예금주: 예수중심교회

::객원칼럼::

::비유열전::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

벌써 해외선교 13년이 지났다. 그동안 목사님을 지근거리에서 수행하며 참으로 배우고 느낀 점이 많지만, 그 중에도 가장 큰 인상에 남는 것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고 복 주시는가 하는 점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라” (시119:165).

물론 목사님이 가시는 길이 결코 평탄한 것은 아니다. 아니 오히려 평탄기는커녕 숨막는 난관이 도사리고 있다. 시차와 날씨, 음식, 언어, 체력적 부담, 뭐 하나 만만하게 없다. 가끔 그런 생각도 해본다.

‘목사님이 한창 팔팔하시던 40대 때에 보내시지 왜 60이 넘어 노쇠해가는 마당에 그 먼 나라로 지쳐 허덕이며 다니게 하시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 해외사역의 증인으로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목사님의 전쟁에 패배를 안기신 적이 없다. 때론 대승의 기쁨은 없었을지라도 하나님의 큰 은혜를 맛보게 하셨다.

그런데 우리 선교팀에는 미국 뉴저지에서 오는 김성자 전도사님이 있다. 목사님의 온몸에 빨대가 꽂혀 진이 빠지는 모습을 꿈에서 본 그녀는 여생을 목사님을 도와 일하겠다고 결심했다. 목사님이 드실 양식과 옷가지 등을 미국에서부터 바리바리 싸오며 집회 때에는 찬양으로 목사님을 돕는다. 무거운 짐을 들고 몇 번씩 비행기를 갈아타며 다니는 것이 이제는 결코 쉽지 않을 나이다. 그러나 늘 기쁨으

로 다닌다. 엄청난 시련과 고난이 있었지만 굴함이 없이 맑은 바 사명을 수행하는 전도사님을 보면 이제 존경심이 든다.

알바라도와 마쿠스파나 두 도시 집회를 그 어느 때보다 힘겹게 마치고 멕시코시티 공항에 도착한 우리는 식사를 함께 하며 작별을 준비하고 있었다. 김성자 전도사님은 6시간을 기다렸다가 달라스 행 비행기를 타신다 했다. 목사님은 측은한 마음에 ‘앞으로는 보파리 줄이고 하루 쉬었다 가라’고 말씀하셨다. 이틀씩 연속으로 비행기를 갈아타고 다니는 것이 젊은 사람도 힘겨운데 그 연세에 얼마나 힘들지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하신 말씀이었으리라.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다. 멕시코시티 근처에 화산이 터져 모든 미국행 비행기가 결항이라는 것이다. 하는 수 없이 모두가 공항 근처 호텔로 들어가야 했지만, 그 덕에 전도사님은 하루 쉬고 떠날 수 있었다. 또 하나 놀라운 것은 우리가 호텔로 들어간 이후 엄청난 폭우가 쏟아졌다. 화산재가 마냥 퍼져나갔으면 결항사태가 장기화 되었을 테지만 이 비로 인해 이틀날 대부분의 비행기들은 예정대로 출발할 수 있었다. 하나님의 깊은 배려가 아닐 수 없었다. 작년에는 새해를 들어 하루를 쉬어가게 하시더니, 시시때때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세심한 손길을 대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늘 먼저 앞서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한은택 전도사

henry8829@naver.com

전쟁에 이기려면

세상은 로마로 통한다는 파스 로마나 시절, 어릴 때부터 함께 자라 장교가 된 두 친구가 있었다. 그런데 서로의 성격이 판이해서 그들의 전과도 뚜렷이 구별되었다. 집안이 좋아 별 어려움이 없이 장교가 된 안토니우스는 매사에 바짝 매달리는 자세가 부족했다. 전쟁에 나가서도 뒷전에 있다가 전과만 쟁기는 양체 짓을 즐겨했다. 그저 돈 잘 쓰는 멋으로 병사들에게 인기를 유지한다고 할까? 전장에서 돌아와도 마방에 말을 맡기며 그만이었다. 말도 수고했으니 쉬어야 한다나?

그런데 친구 막시밀리안은 평민출신인데다 어려운 유년시절을 보내서인지 철저한 준비와 함 없이 늘 자기 연마에 열중했다. 전쟁에 나가서도 그는 늘 진두지휘를 했고, 눈부신 전과를 올렸다. 특히 놀라운 것은 전장에서 돌아와도 말을 쉬게 하지 않는 거다. 다람쥐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큰 바퀴 앞에 말을 묶어놓고 앞발을 올려놓는다. 그러면 말

은 어쩔 수 없이 돌아가는 쳇바퀴에서 발을 굴뚝 수밖에 없다. 이를 보고 비정하다고 다들 한마디씩 한다.

그러나 전쟁이 터지고 전장으로 달려가야 할 즈음 그 효과는 즉시 판가름 났다. 안토니우스의 말은 너무 쉬어서인지 제대로 달리질 못해 퇴각하는 순간 그만 적에게 포위를 당하고 말았다. 그런데 막시밀리안의 말은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번개처럼 달려 나가 전장을 이리저리 후벼 적을 유린하고, 안토니우스까지 구축해냈다. 그 후로 마방마다 대형 쳇바퀴를 설치하고 말을 훈련시켰고, 로마기병의 명성은 여기서부터 시작됐나?

글도 자주 써야 명문이 나오고, 명연주자도 매일 연습해야 그 기량이 죽지 않는다. 그저 몰아서 해치우는 사람치고 제대로 하는 자가 없는 법, 늘 꾸준히 준비하고 연습하고 훈련하는 자를 누가 당하랴!

예수중심편집실



::교단소식::

짧은꿀은 시간과 정비레한다



지난 16일, 의정부 예수중심교회가 새 성전을 건축하고 입당예배를 드렸다. 의정부 예수중심교회는 성전건축에 한 번 좌절을 겪었지만, 낙심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 오직 기도로 이 성전을 완공한 것이다.

장맛비가 내리는 와중에도 교단의 교역자, 장로,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입당예배에 대거 참석하여 성전은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총회장 목사님은 “짧은꿀은 시간과 정비레한다. 나를 달기를 바란다.”는 제목으로, 더욱 굳건한 믿음을 심어주셨다.

“박찬일 목사야, 나는 네가 나를 달기 바란다.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기 바란다

고 했듯이, 나도 네가 나를 달기 바란다. 먼저 달을 것은 무엇보다 하나님 우선주의, 하나님 중심주의로 사는 삶이란단. 나는 부모, 처자, 돈이나 명예보다 항상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다. 하나님께 내 편에 서달라고 하지 않았고, 내가 하나님께 편에 섰다. 그랬더니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마6:33)’는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이루어졌다.

춘추전국시대에 조나라에 엽파와 인상여라는 자가 있었다. 당시 강국 진나라가 조나라를 힘있게 할 때, 인상여라는 자가 배장과 용기로 진나라로 찾아가 그 일을 해결했다. 조나라의 왕은 인상여에게 상경의 벼슬을 내렸지. 그러자 이 나라의 최고 장군인 엽파가 기분 나빠 불쾌한 감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인상여를 만나기만 하면 목욕을 주려고 별렀지. 그런데 인상여는 엽파가 나타날 기미만 보어도 궁에 나가지도 않고 피하

기만 했다. 멀리서 엽파가 오는 것만 봐도 마차를 서둘러 물렸다. 그러니 인상여를 따르던 자들이 점점 그에게서 떨어져나갈 수밖에. 그러자 드디어 인상여가 말문을 열었다. ‘엽파와 나는 두 호랑이다. 두 호랑이가 싸우면 둘 다 망하고 나라도 망한다. 우리가 싸우면 그 틈에 진나라가 쳐들어올 수 있다. 나는 나라를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사사로온 감정을 뒤로 접을 거다.’ 이 말이 엽파의 귀까지 전해졌지. 그러자 엽파는 웃웃을 벗고 어깨에 가지 회초리를 짊어진 채 인상여를 찾아가 사죄했고, 이 소식을 들은 왕은 이 둘에게 모든 전권을 위임했다. 너도 인상여 같은 자가 되어야 한다. 교회를 먼저 생각하고, 성도를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하계사의 말씀처럼 하늘과 땅과 만물과 만인을 진동시켜 이 전을 충만케 할 것이다.

그리고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레아 하나님께서 큰일을 맡기신단다. 나는 칠산리에서 한 명의 성도에게 충성했더니 오늘날 세계 70여 개국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될 수 있었다. 비록 적지만 너에게 맡겨진 영혼들

에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의정부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너에게 붙이실 것이다. 작은 사과 씨 속에 사과나무가 들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또 하나, 네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너를 믿는다는 소리를 들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네가 어떻게 해야 할 지 스스로 생각해야 한다. 몸을 믿었던 하나님, 나를 믿는 하나님에 박찬일 목사를 믿을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렇게 행하면 너의 소문이 의정부를 덮을 것이다. 그래서 이 교회로 많은 영혼들이 끌려들 것이다.

짧은꿀은 시간과 정비레한다. 내가 걸 어온 길, 내 삶을 따라오다 보면 나와 닮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종으로서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산도의 진통을 겪고 완공된 성전, 그 단에 24시간 기도하는 박찬일 목사,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박찬일 목사, 작은 일에 충성하는 박찬일 목사의 소문이 곧 의정부에 퍼져 이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득하게 될 것을 믿는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

신영서

jesus7857@gmail.com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요14:6)



위성과 인터넷으로 생중계된 수원예수중심교회 주일예배 광경



수원예수중심교회 담임 김진 목사와 함께

지난주일, 수원 예수중심교회 주일예배 실황이 전국과 전 세계로 위성을 통해 생중계되었다. 이는 수원교회 담임인 김진 목사를 비롯한 성도들이 금식과 기도로 준비하고 총회장 목사님께 감동한 결과다.

수원 예수중심교회는 새 성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2,000명 전도목표’를 세우고, 전도특공대를 조직하여 매주 전도를 나간다. 그런데 나가기에 앞서 꼭 사무실 액자에 쓰인 ‘병사는 죽어도 전쟁은 이겨야하고, 필박과 순교가 온다 해도 예수는 증거 되어야 한다’는 글귀를 세 번 복창한다고 한다. 김진 목사는 “성전만 아름다우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성전에 하나님의 사람이 가득해야 진정한 아름다운 교회”라며, 이번 주일 위

회장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이지 않는 것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자는 없습니다. 우리 눈에는 산소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을 붙여보면 산소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선 속에 전기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볼 수는 없지만 스위치를 켜면 불이 들어오는 것을 통해 전기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보이는 세상이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육안으로는 볼 수 없지만, 분명히 계십니다. 그 분이 천지만물을 지으셨고, 우리도 만드셨습니다. 그 분이 흠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당신의 영인 생명을 우리 코에 불어넣으셨습니다. 여러분, 복숭아 껍질과 육질이 복숭아가 아닙니다. 그 안의 씨에 생명이 있고, 그것이 진정한 복숭아입니다.

흠으로 빚어진 육체가 내가 아니라 씨, 생령이 나라는 것입니다. 육은 수한이 차면 벗어버리나 영은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도 죽은 조상의 영혼을 위하여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모순 아닙니까? 죽으면 그만인데 왜 제사를 지내줍니까? 그건 사후의 영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죽은 다음의 세상은 분명히 있습니다. 바로 천국과 지옥입니다. 죽고 난 다음에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때 예수를 믿은 사람은 천국으로, 안 믿은 사람은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설마라고요? 예전 사람들이 바다 건너에 미국이 있다고 믿었을까요? No! 바다 끝에 가면 다 떨어져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미국이 없다고 우긴다고 미국이 없는 것이 아닌 것처럼, 여러분이 믿지 않는다고 천국과 지옥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비자를 받고 비행기를 타면 미국에 언제든지 갈 수 있듯이, 천국행 비자, 곧 예수를 믿으면 언제든지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예수만이 천국에 이르는 길입니다(요14:6). 예수 외에 다른 길로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빛이 들어오니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를 괴롭혔던 존재가 누구인지, 우리의 것을 도적질해간 놈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악한 영, 곧 마귀와 그의 졸개인 귀신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일을 진멸하셨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셨던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예수를 믿고 회개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70, 80평생 한 번도 목욕을 안 했어도 목욕탕에 가서 비누로 씻으면 깨끗해지듯, 평생 지은 죄도 예수의 피로 씻으면 다 정하게 됩니다. 그 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받아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대충 살다 지옥 가지’ 하시는 분들, 감옥은 시한이 있지만 지옥은 영원히 그곳에서 살아야 합니다. 불과 유황이 타고, 전갈이 쏘는, 벌레가 입으로 코로 들어가고 가혹한 형벌이 영원히 계속 되는 곳이 지옥일진대, 그렇게 합부로 말을 해도 됩니까?

울행이가 개구리가 될지 누가 알았으며, 번데기가 나방이 되고, 구더기가 파리가 되는 것을 어찌 알았겠습니까? 기한이 차니까 개구리가 되고, 기한이 차니까 나방이 되고, 파리가 되지 않습니까? 언젠가 기한이 잘 날이 옵니다. 인생종착역에 도달할 때가 옵니다. 그 때 전혀 다른 두 세상 앞에서 어느 쪽으로 가시렵니까? 예수를 믿으세요. 오늘 처음 교회에 오신 분들도 예수를 영접하면 오래 믿은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신생아인 여러분을 더욱 아끼고 사랑하실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세요.”

목사님은 예배가 끝난 후에 일일이 모든 사람들을 안수하셨고, 병든 자들에게 안수하셨다.

수원 예수중심교회는 목표한 바 2,000명 영혼구원을 반드시 이루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신영서

jesus7857@gmail.com

::Edu Section::

자기주도 학습의 참된 정의

학습자 스스로가 학습의 참여여부에서부터 목표 설정 및 교육 프로그램의 선정과 교육평가에 이르기까지 교육의 전 과정을 자발적 의사에 따라 선택하고 결정하여 행하는 학습형태를 ‘자기주도 학습’이라고 한다.

자기주도 학습은 사회교육이나 성인학습의 특징적 방법으로 많이 활용된다. 그 이유는 학교교육의 경우, 통상적으로 정형적 교육(formal education)의 성격상 표준화된 교육과정에 의해, 교사의 주도하에 타율적인 교육이 실시되는 반면에, 사회교육에서는 상대적으로 학습자에 의한 자율적 교육의 선택의 폭이 넓은 비정형적이고 자율적이며 이질적이고 다양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자기주도 학습의 의미를 잘못 해석하고 책상에 앉아있는 많은 중고등학생들이 있다.

통장에 많은 돈이 비축되어 있는 사람들이 경제 활동을 더 자유롭게 수월하게 해 나갈 수 있는 것처럼 학업도 마찬가지로 다. 중학생이면 중학생, 고등학생이면 고등학생으로서 배우고 익혀야 할 많은 지식들이 있다. 그 지식의 풍성함이 기반이 되어있는 학생은 통장에 많은 잔고가 있는 사람들처럼 자유롭게 학업을 수행해 나갈 수 있다. 그와 같은 학생의 경우라면 자기 주도 하에 성실히 자신의 실력과 수준에 맞게 자기주도 학습을 해 나갈 수가 있다. 그러나 지식의 기반이 갖춰지지 않은 경우에는 자기 주도 학습이라는 명목으로 책상에 앉아 있어봐도 스스로 이루고 공부해나갈 수 있는 능력이 한계에 부딪히기 마련이다. 텅 비어있는 빈 그릇에 물을 가득 채워야만 물이 넘치는 것처럼, 부족한 기본 지식을 충실하고 알뜰하게 채운 후에야 자기주도 학습을 통해 성적

향상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기주도 학습법으로 학업에 몰두하여 성적이 향상되기를 진정으로 바란다면, 먼저 자녀의 부족한 기본지식을 채워야 하며, 그럴 경우에는 진정성 있는 학습 도우미를 만나서 체계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자원이 없는 우리나라를 오늘의 선진국으로 이끌었던 데에는 교육열도 한 몫한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의 중요성과 진정성은 무시한 채,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볼 수 있다. 자녀의 미래를 위하여 자녀의 정확한 지적 상태에 관하여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지식이 없는 소원은 선치 못하다”(잠19:2).

오자유

oh.free@hanmail.net

이초석 목사 하계산상집회

8월 5일(월)~ 22일(목)

호텔 예약

7월 23일(화) 오전 10시
- 첫 주(8월 5~8일)

7월 24일(수) 오전 10시
- 둘째 주(8월 12~15일)

7월 25일(목) 오전 10시
- 셋째 주(8월 19~22일)

호텔 예약은

오전 10시 정각에 받습니다
1600-0688, 02-533-9191